

제조업 1분기경기 상승, 인쇄는 하락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 자금사정과 제품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전분기에 비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제품가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BSI가 기준점인 4.0을 상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인쇄업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제조업 경기실사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1분기 전망에서 자금사정과 제품가격이 여건 불변 기준점인 4.0을 밑돌았다. 좋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도 자금사정과 제품가격은 4.0을 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인 업황 BSI가 전분기와 유사해 회복속도는 아직 완만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연간 전망에서는 제품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이 4.0을 넘어 호조세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산자부와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1분기에 조선, 전기기계, 비금속·석유정제, 목재·종이·인쇄 등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나, 연간으로는 모든 업종이 매출 증가가 전망됐다.

중소기업 ERP·아웃소싱 관심 높다

전자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고객관리(CRM) 등 주요 정보화 솔루션 대부분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는 높지만 아직 도입률이 낮아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국내 5명 이상의 중소기업 1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IT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 및 규모별로 정보화 솔루션에 대한 인식 정도, 도입 여부 등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50명 이상 중소기업 시장에서 ERP, SCM, CRM 등에 대한 인식 정도와 도입계획은 전반적으로 높게 파악됐다. 반면 5~50명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은 IT부문 투자력과 기

여도는 물론 솔루션 수요 및 전망도 매우 낮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 시장에 대한 솔루션 업체나 정부 차원의 시장 공력 및 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솔루션별로는 ERP가 필요성, 도입률, 도입계획 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중소기업 정보화의 표본으로 가장 유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RP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58.4%) 실제 도입률(33.7%)은 크게 낮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도 가장 높음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솔루션 시장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ERP는 제조, 건설, 유통·서비스 등 전 업종에 걸쳐 기업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 신고도 인터넷으로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신고시스템이 전면 가동돼 전국 32만1256개사의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3월8일부터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법인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신고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중점관리대상을 지난해 10만1000개에서 3만5000개로 대폭 축소, 기업의 부담감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함업계 "올 경기 좋아진다"

중소지함업계는 올해 내수시장 호조와 함께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경영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해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을규)이 최근 조합원업체 1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도 경기전망'에 따르면 응답업체

의 78.6%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올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27.6%의 업체가 심각한 인력난 등으로 인한 설비자동화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10.3%는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 불투명으로 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절반수준인 52%나 됐다.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동종업계 덩핑(32%), 채산성 악화(21.6%), 골판지업계 시장잠식(16.6%) 등을 지적, 업계 스스로 공정한 상거래를 통한 시장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달청 조달사업 40% 조기집행

조달청은 고용 창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조달사업 계획 물량의 4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내자구입 및 시설공사 계약 22조원 중 40%인 8조8천억원을 1/4분기에, 70%인 15조4천억원을 상반기까지 집행키로 했다.

또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판로지원 물량을 전년 13조4772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6.1% 늘리는 한편 지방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에도 전년보다 6.7% 증가된 11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43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늘렸다.

마포구 상공회 경영애로 무료상담

서울시 마포구 관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활동지원 등을 위해 2001년에 설립된 마포구상공회(회장 민재기)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세무 회계 노무관리 등에 대해 무료상담과 함께 각종 강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관내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비와 회비는 없다.

문의전화 375-1092. 홈페이지 mapogu.seoulcci.korcham.net

노동생산성 줄고 임금은 크게 올라

작년 3/4분기 제조업 시간당 임금(명목)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03년 3/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산출량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 지수는 113.1로 전년동기 대비 5.6% 높아졌으나 시간당 임금지수는 140.2로 9.7%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트레일러(33.4%), 봉제 의복 모피(32.6%), 컴퓨터 사무용기기(24.9%), 출판 인쇄 기록매체(21.8%), 가죽 가방 신발(20.8%) 등 5개 업종은 단위노동비용이 20% 이상 늘어 비용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분기 3%, 2분기 4.3%보다 개선됐지만 2002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 9.2%에는 못미쳤다. 이같은 노동생산성의 호조는 소매 판매, 내수용 소비재 출하, 국내기계 수출,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에 따른 소폭(2.9%)의 산출(생산)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량이 2.5%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투입량은 근로자 수(0.8%), 근로시간(1.8%)의 감소로 2분기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담배(37.6%),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23.5%) 등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봉제 의복 모피(15.7%), 자동차 트레일러(17.6%), 출판 인쇄기록매체(9.4%), 컴퓨터 사무용기기(7%) 등은 마이너스를 보였다.

성수동 공장지역 뉴산업단지 개발

서울 성수동 영세공장 밀집지역 300여만 평이 이르면 2006년부터 생명공학(BT) 등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뉴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도심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슬럼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동구 성수동 영세 공장 밀집지역 10km(302만여평)을 무공해 첨단공업단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 지역을 뉴타운과 비슷한

'뉴산업단지' 방식으로 개발키로 하고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발전구상'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에 생명공학과 환경공학(ET) 등 무공해 신산업 단지가 입주하는 것이 좋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지역에 무공해 신산업 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택심 숲과 연계해 강북지역의 산업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뉴산업단지'는 기존 공업지역 개발에 시가 개입해 재개발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뉴타운' 방식을 공업지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에는 인쇄출판·전기전자·기계부품·섬유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중기에 맞춤형경영정보 무료 제공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영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맞춤 경영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

'맞춤경영정보서비스'는 금융, 과학·기술, 마케팅, 노무 등 기업이 경영과정에서 궁금하거나 필요한 기업정보를 기업은행 홈페이지(www.kiupbank.co.kr)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정보를 수집해 고객의 e-메일과 기업은행 홈페이지로 신청정보를 제공하고 SMS문자서비스로 통지하는 무료서비스이다.

기업은행은 1989년부터 정보수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정보지원을 위해 거래중소기업에 팩스, e-메일, 인터넷으로 주요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라 전문영역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전문지원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정보제공에 대한 업무제휴를 했다.

기업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일방향식 정보제공에서 쌍방향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정보제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게 됐으며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없이 필요한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 대폭확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올해 총 4조원의 시설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3조5천억원 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특히 이 자금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한도를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또 필요 시 기존 시설자금 대출보다 저리의 특별자금을 설정, 운용해 시설투자 수요를 유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아울러 일선 지역본부와 영업점별로 시설자금 공급 목표를 배정하고 시설자금 취급실적이 우수한 영업점에 대해 경영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기계 설비자금의 최장 대출기간을 현행 8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상환방법을 다양화해 ▲대출초기에 상환금액을 적게 하고 대출말기에 가까워질수록 많게 하는 체증식 상환 ▲대출금의 50%를 대출기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50%는 대출말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영세소기업 중고설비 구입자금 신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신규 설비투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소기업들에게 총 300억원 규모로 운영하는 중고설비구입자금을 신용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고설비구입 자금은 중고설비구입 시설자금 이외에도 시설도입 이후 초기 가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도 시설자금의 40%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3억원(운전자금 포함)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5.4%(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3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중고설비를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휴설비정보 포털사이트(www.findmachine.or.kr)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설비구입자금 신청과 안내는 중진공 각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수출증기에 5조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설비투자 기업에 대해 총 5조원 규모의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매출액의 절반이던 무역금융 보증 한도를 매출액 수준까지 대폭 늘리고 운전자금 보증 한도의 경우 매출액의 1/4에서 1/2로 역시 두 배 확대했다. 단 무역금융과 운전자금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 100억원과 30억원 이내로 유지했다.

이번 특례조치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 수출중소기업과 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미만이나, 향후 수출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체다. 또 신용장(L/C) 보유 등으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 보증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신속한 시설자금 보증 처리를 위해 전액 담보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30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10억원까지 적용하던 약식심사 대상은 보증금액 30억원까지로 늘렸다. 보증료 3개월 분납대상도 대폭 낮춰 총 보증금액이 15억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던 것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도 일부 조정, 현행 일반기업의 70%~85%에서 90%~100%로 상향조정해 채권은행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구직에 걸림돌

여성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여성보호제도가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져 여성실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여성 실업인구가 지난 2002~003년에 20만7천명에서 30만6천명으로 늘어나며 실업증가율이

47.8%를 기록, 남성(10.2%)의 4.6배에 달했다며 "이는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부담이 남성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종업원 10~100명의 중소기업에서는 지난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이 강화된 이후 여성고용이 1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의 보고서는 2001년 6%의 증가세를 보이던 중소기업의 여성고용률이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부담스러워 여성인력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7월에 개정된 모성보호관련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출산휴가 급여중 60일은 기업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는 한편 △무급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변경해 고용보험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급하고 △여성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업이 여성인력을 고용하는데 따른 추가적 규제와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 지원사업 설명회

중소기업청은 3월초까지 전국 58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8개 중앙부처와 8개 지원유관기관의 191개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수출·판로지원사업 등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권역

별 시·군·구 단위로 중소기업이 밀집한 중소도시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소기업민원 공무원이 1대1로 해결”

경기 포천시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4~6급 공무원 99명이 지역 내 50인 이상 중소기업 99곳과 1대1로 짝을 지어 기업 활동의 어려운 점을 직접 파악하는 것. 후견 공무원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로 연락해 해결방안을 찾아 기업에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시에도 맡은 기업은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포천시는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준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예정이며 반응이 좋을 경우 실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경협 참여 중소기업 지원

남북경협 참여기업에 금리·보증지원 확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북경협 참여기업에 대해 금리우대 및 보증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남북경협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증비율을 75%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수출입은행은 이들 기업을 남북협력기금 신용대출한다 및 금리적용 등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